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5월 1일(월) 16시: 기자촌 재개발 조합 1차 출간본 보고회
- 5월 2일(화) 15시 30분: 사무국 회의

■ 연구원 소식

55차 문화 강좌 (5월 13일)

지난 54차 문화 강좌에 이어 55차 문화강좌가 당초 예정되었던 강사인 이정욱 감독의 사정으로 4월 29일(토)에서 **5월 13일(토)**로 변경되었습니다. 55차 문화강좌는 <한국 무협 영화의 역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전북이 낳은 세계적인 무협 영화 배우 왕호부터 거룡, 차룡 그리고 오늘의 정두홍까지 이어지는 무협 영화 배우와 영화의 역사를 만나는 55차 문화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때: 2023. 05. 13. 17시 30분

곳: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대상: 시민과 회원 누구나(장소 관계상 스물 다섯분 내외 가능)

■ 역사속의 오늘

포로가 된 포로수용소장(1952. 5. 7)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년여가 흐른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이 2년이나 지속된 것은 포로 때문이었다. 유엔군측이 발표한 북한군 포로는 13만2400여명(중공군 포로 2만 700명 포함)이었고 북한측이 발표한 유엔군 포로는 1개월 전 평양방송을 통해 주장한 6만5000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1만1500여명(유엔군 4400여명 포함)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포로송환이었다. 유엔군측이 인도주의적인 점을 강조한 자유송환 즉 원하는 포로만 북한으로 보낸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한측은 1949년 제네바협정이 규정하 대로 자동송환 즉 모든 포로를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주장을 폈다. 북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포로가 7만 여명뿐 이라고 유엔군측이 북한에 통보하자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거제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교착에 빠진 포로송환 문제로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충돌이 빈발했다. 급기야 1952년 5월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도드(Dodd)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감금되는 포로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수용소 철조망 밖에서 포로들과 면담을 하던 중 포로들에게 수용소 안으로 끌려간 것이다.

1952년 5월 7일, 도드 준장은 제76구역 포로들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포로수용소장 면담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드 준장 보좌관은 포로들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한 나머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도록 포로수용소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도드 준장은 보좌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약속시간에 제76구역 출입구에서 직접 포로대표들과 면담했다. 그런데 면담 도중 포로들이 그를 에워 쌓고 순식간에 포로수용소 안으로 끌고 갔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이 사태를 긴급히 보고받고, 즉각 콜슨 준장을 새 거제포로수용소장으로 임명했다. 포로들은 도드 준장 감금에 성공하자 콜슨 신임 포로수용소장에게 도드 석방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그 요구조건은 포로수용소 내에서 유엔군 기간병들의 포로에 대한 야만적 행위 중지, 포로 자유송환 중지, 포로 강제분리 심사 금지, 포로대표단 인정 등이었다.

콜슨 소장이 그들에게 포로 자유송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조건을 수용했고 포로들은 수용소장이었던 도드 준장을 풀어주었다. 도드가 감금된 지 3일만이었다.

도드 준장이 석방되자 유엔군사령부는 그의 실책을 추궁했다. 그와 함께 사태 수습을 맡았던 콜슨 준장도 너무 큰 양보를 하였기에 포로수용소장으로 신중치 못한 처사라 하여 그 책임을 물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즉각 콜슨 포로수용소장도 해임하고, 그의 후임에 보트너 준장을 새 거제포로수용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런 뒤 도드 납치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곧 도드와 콜슨 두 준장을 대령으로 강등하는 불명예 조치를 내렸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대장은 수용소 치안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했고, 신임 수용소장인 헤이든 L. 보트너 준장이 6월 10일 공수특전대와 탱크를 앞세운 대대적인 무력진압을 시도하면서 '거제도 포로 소요 사건'은 도드 석방 한 달 만에 일단락됐다.